



# 코헬

99  
가을  
제 33호

KOREA HEMOPHILIA FOUNDATION

• 등록번호/세미 167호 • 등록일자/1991. 9. 17 • 발행인/이순용 • 발행일/1999. 9. 30 • 편집인/김은주



사회복지  
법인 한국혈우재단

## 코헬하게 캠프



**한** 국코헬회는 지난 8월 11일~14일 충남 당진군청소년수련마을에서 99코헬하게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혈우재단 후원과 제약회사 Baxter, 한세복지재단 협찬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140여명의 코헬회원과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여 우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학세미나와 재활운동시간을 통하여 최신정보 습득 및 교육과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가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행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차 례

1. 초대석	경희간호대학 교수 김원옥
2. 혈우병 상식/혈우 보인자에 대하여(Ⅳ)	
6. 코헬 하계캠프	
8. 멋과 향을 찾아 떠난 여행	취재 김승택
10. 가정탐방	취재 김승택
11. 문예	수필/시
12. 알립니다	

## 1999년 가을호

- 등록번호 / 서바 167호
- 등록일자 / 1991. 9. 17
- 발행일 / 1999. 9. 30
- 발행인 / 이 순 용
- 편집인 / 김 은 주
- 인쇄인 / 덕수인쇄 김재호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

130-0700

서울·동대문구 용두동 234-1

포은빌딩 3층

TEL : 928-4581~2 FAX : 928-8440

크로바 서비스 : 080-021-7575

# 최고 수준의 건강



경희간호대학 교수  
김 원 옥

**21** 세기가 다가온다. 산업화 과학화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는 국가 개념을 없애고 세계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특히 의료의 과학화로 인해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이 1995년에 72.9세이던 것이 2000년에는 74.3세(보건사회 통계연보)로 연장됨으로서 장수 사회를 대비하는 건강관리가 급속히 요구되어진다.

우리는 급변하는 21세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건강의 정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의 정의를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너무 추상적이고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절대 개념이므로,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선상에서 변화하는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세계보건기구는 다시 보다 실용적인 차원의 정의를 추가로 내렸다. 즉 건강은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서 적절한 생체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Halbert Dunn은 건강을 최고수준의 안녕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최고 수준의 안녕이란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개인의 가능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통합된 기능을 말한다. 그렇다면 개인의 건강은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모 대학 공대를 다니다가 군대에 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 전기공사를 하다가 뒤로 떨어져 목뼈가 부러진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그후에 헌신적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에게 오직 남아있는 기능인 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붓글씨를 쓰는 것을 배워서 그는 훌륭한 구필 화가가 되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그는 의식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장애인들의 귀감이 되고 마스크에도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고 있다.

최근에 혈우병이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한 40대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처음에 혈우병만 갖고 있었으므로 혈우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또 잘 사는 모습일까 깊이 숙고하여 그동안 자신의 직업을 동적이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지닌 금세공 쪽으로 정하고 공장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 오셨는데, 어느 날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이문제로 슬퍼하기에 앞서서 부인과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나중에 부인이 운영할 수도 있는 점포를 개업하였고 아들도 언제 다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여 독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어린 나이부터 자립심을 키우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힘겨운 현재 상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신의 직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점포 속에 소점포로 개발하여 변화해 가겠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재활운동을 위해 의족을 하고도 블루스를 배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춤을 통해 재미있고 기쁘게 건강관리를 해갈 수 있으리라 꿈을 키워가고 있다. 최고의 삶의 질, 최고의 안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은 정말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아는 분이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사람이 살아 갈 수 있는 여러 갈래 길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겠는가?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숨은 능력을 발휘할 비책을 세움은 어떠한가?

Abraham Maslow에 의하면 인간은 다섯 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단계는 산소, 물, 영양, 배설, 운동, 수면, 등 생명 유지와 관련된 생리적 욕구로 욕구체계의 기초가 된다. 둘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 다음 단계로 안전과 안정의 욕구가 해당 되며 감염을 예방한다든지 심리적 불안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로 안전과 안정의 욕구 다음 단계가 되며 사랑을 주고 받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이해와 수용, 친구나 가족 등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을 포함한다. 넷째 단계는 자아 존중감의 욕구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해 긍지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서 기본 욕구 체계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개인의 가능성을 충분히 개발하여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다섯 단계의 욕구에도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적 욕구까지 포함하여 인간의 욕구로 보고 있으며,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 잠재력을 개발하여 총체적 노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총족한 삶이며 행복한 삶이다. 누가 어떤 건강을 갖고 태어났는지,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처한 바로 그 건강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의 방법이다. 그것은 멋진 인생이요, 보람찬 인생이요, 가치있는 삶의 참 모습이다.

우리 코험 회원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에너지로 달려 갈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이 있다고 선택된 사람들이므로, 그 능력을 개발해 나갈 책임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 낼 수 있는 사람, 내적 에너지가 더 많은 사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도약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코험 회원들이다.

내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잠재력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으로서, 나만이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용권자이다. 남보다 큰 짐을 지고 서 있기는 하지만 남보다 큰 능력자로서, 모두가 보는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서 힘차고 당당하게, 멋지고 가치있게 특별한 나의 삶을 살아가 보자. 최고수준의 안녕과 건강은 누구나가 추구하고 희망하는 삶의 목적이지만, 자칫 자만함으로써 그 목적을 놓치고 비방으로 떨어지는 예는 허다하다. 마치 이슬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처럼 때만 부리다 실패하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같은 순수한 끈기와 꾸준함으로 최고 수준의 안녕을 향해 질주하는 진정으로 나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자.

코험 화이팅! 화이팅 코험!

□ 이 내용은 호주혈우재단이 발간한 소책자인 'On being a carrier'를 번역한 것입니다.

## 혈우 보인자에 대하여(IV)

혈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정보 책자

**“혈우병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날 보인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런 칭호보다는 나에겐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요. 나는 먼저 인간이고, 여자이고, 연인이고, 엄마이면서, 또 친구이니까요...”**

### 유아 입양

유아 입양 프로그램에 의해 유아로 분류되는 아기의 나이는 2달에서 1살이다. 70년대 초부터, 입양되기 위해 등록되어 있던 아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대기자 명단에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는 것이다.

유아 입양 프로그램은 출산부모의 동의후, 입양부모의 선택적인 과정안에서 출산부모와도 관련을 갖는다. 입양부모는 다른 가족들(예를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과의 교류내지 만남을 원할 수도 있다.

### 영구적으로 기르기

영구적으로 기르기는 아이가 자신의 가족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이제 새로운 가족에게로 영구적으로 입양되는 경우이다. 전 가족과의 경험으로 인해, 이러한 아이들은 행동의 변화를 갖게되며, 발육저하와 강한 감정욕구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갖는다.

영구적인 기르기에서는, 아이들은 자기의 원래 출생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기의 출생가족과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약 2-13살의 아이들은 다양한 흥미와 재능을 가진다.

독신자나 결혼한 사람들이나 영구적인 기르기 프로그램에 아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입양과 영구적으로 기르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째는 입양과 영구적인 기르기 서비스와 이야기를 해 보라.

### 국제 입양

국제 입양은 해외로부터 입양아이를 데려오는 것이다. 주로 남미나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과 특별한 법이 마련되어 있다. 각각의 주마다 국제입양서비스(ICAS)가 있다. 국내입양과 좀 다르긴 하지만 당신의 주에도 국제입양에 대한 기준이 갖추어져 있다. 해외국에서도 입양조건에 필요한 필요조건들을 요구할 것이다. 민족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아이에게, 가족에게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ICAS가 당신과 상의해 줄 것이다.

### 수양 보호(Foster Care)

다른 선택은 수양보호부모가 되는 것이다. 수양보호는 어느 일정기간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다. 독신자나 기혼자나 수양부모가 될 수 있다. 지방의 수양보호기관에 연락해 보라.

### 아이없이 지내기

“저의 부모님과 저는 아이를 두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은, 우리의 결정은 단지 내가 혈우보인자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의 라이프스타일도 관계가 있었지요.”

아이를 갖지 않는 오스트레일리아 여성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 그 것이 항상 선택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이없이 사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부부는 더 많은 시간을 서로에게 쏟을 수 있다. 또는 일의 경력을 쌓는 일과 여행할 기회들을 더 제공받을 수도 있다.

### 출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전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두 아이가 있어요. 만일 당신이 제가 아이들을 갖기전에 잘 대처할 수 있겠냐고 물었었다면, 전 확실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아이들은 고통보다는 더 큰 즐거움을 줍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혈우병 아이를 갖을지 말지 혹은 다른 대안을 찾아볼 것인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은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이전의 경험들로부터 형성된다. 많은 이들의 태도는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처해 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

나, 어떤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신념들로 인해 큰 고통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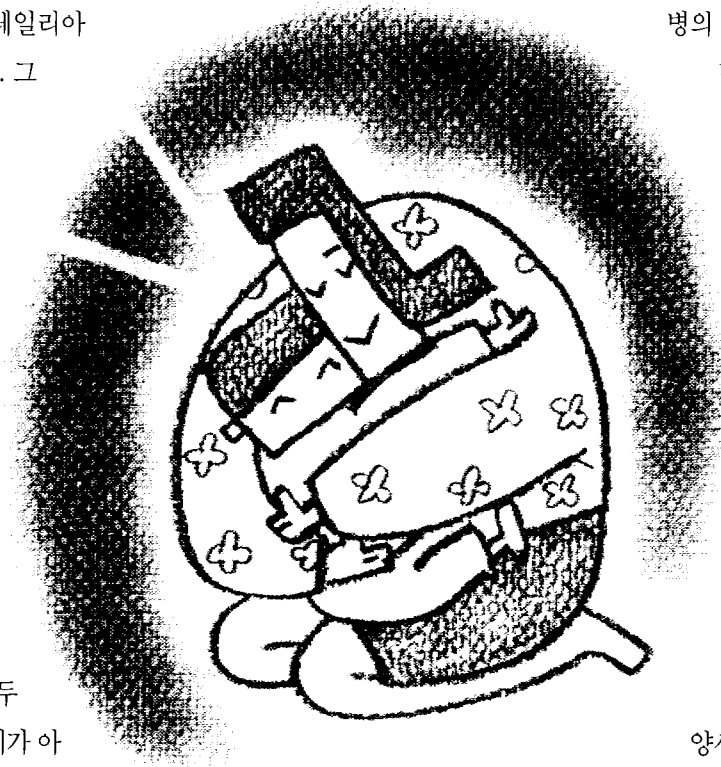
“전 카톨릭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낙태반대에 찬성해 왔어요. 그러나 전 혈우아이를 갖고있고 이것은 저희들에게 큰 고통이 되어 왔지요. 제가 또다른 혈우아이를 가져서 대처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혈우병은 보통 “Breeds true”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만일 당신의 가족중의 혈우병의 증세가 심하면,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심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가족중의 혈우증세가 약하면, 아이들도 약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미래의 아이를 계획하고 진단을 받을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만일 배속에 있는 아이가 혈우병으로 진단받은 여성들은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이를 낳을 것인지, 자기아이를 기를 것인지 입양시킬 것인지, 아니면 낙태시킬 것인지...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성을 감별했지요. 만일 남자아이였다면, 낳지 않을 작정이었지요”

### 임신

“혈우유전자를 보인하고 계신 저희 부모님이 임신임을 알았을 때, 저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피가 멈추지 않아 죽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요. 다행히, 그녀의 의사가 저에게 사실을 설명해 주었죠”



혈우 보인자인 여성의 임신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흔히 8인자의 레벨이 높아진다. 즉 혈우 A 유전자를 지닌 여성들은 임신중이거나 출산 중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매우 낮은 8인자 레벨을 보인다면, 치료는 필요하다.

임신중 8인자가 더 필요한 여성들에게 이제는 유전자 재조합 8인자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혈장에서 나온 8인자는 현재 파르보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위험이 있다. 이 바이러스는 태아를 잃게할 수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들에게는 재조합된(recombinant) 8인자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9인자는 임신 중 레벨이 증가되지 않는다. 9인자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는, 고순도 9인자를 투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혈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 혈우 아이를 기르는 것

혈우병을 취급하는 것은 정말 긴 여행이고, 사실, 혈우병을 가지고 자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긴 삶의 여정을 사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정말 좋아요. 예방 덕분에, 저의 꼬마는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 지내죠”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심한 혈우를 가진 아이들은 지금은 예방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출혈하기 전 주사를 받는 것이다. 과거에는 출혈이 시작된 다음 치료가 되어졌다. 예방적 응고인자 주사로 어린 아이들이 전혀 출혈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흔히, 혈우 아동들은 집이나 다른 개인적인 환경에서 치료되어진다. 이것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출혈에 의한 고통은 제외하고라도, 혈우아이와 부모들은 가정에서 인자를 주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혈우 아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이었어요. 비록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 계속 내 아이를 걱정하니까요”

혈우아이는 행동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몸을



부딪히는 운동은(축구, 럭비등) 좋지않다.

흔하지않게, 어떤 혈우병은 치료약에 대해 항체가 생겨난다. 그들의 몸은 주사약을 거절하는 것이다.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지내기가 정말 어려워진다.

“응고인자 항체는 제 아이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어요. 그 아이의 고통은 정말 우리모두에게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혈우병의 치료는 지금으로서는 미래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혈우연구는 유전자치료(결합의 세포를 정상의 세포와 바꾸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에는 결합의 응고인자를 고치게 될 것이다.

### 여성에게의 혈우증상

혈우 보인자인 여성들은 한쪽의 정상인 X 염색체와 결합의 나머지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한쪽의 정상 X 염색체에서 정상적인 8인자 또는 9인자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만일 그 레벨이 떨어지면(정상은 50-150u/dl) 당신은 출혈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출혈증상을 나타내는 보인 여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자료가 없다. 어떤 이는 약 10-15% 보인 여성이 출혈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예측한다. 다른 요인들이 인자 레벨에게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면 약, 운동, 스트레스 그리고 생리기간 동안 변동되는 호르몬양 등이다. 보인 여성들에게 멍, 생리중 과다출혈, 이를 뽑고나서 출혈이 지속되는 것, 수술후의 출혈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흔하지 않지만, 장기의 출혈, 관절 출혈 같은 증세를 가질 수도 있다. 출혈의 정도는 응고인자 활성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출혈을 치료하는 것은 두 방법이 있다. 많은 출혈은 보통 얼음을 대든지, 압박을 가한 다든지 하는 조치로 멈춘다. 더 심한 출혈은 응고인자의 레벨을 높이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응고인자를 주사하는 것은 보통 외과 수술이나 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문일이다.

혈우A 유전자를 보인하는 여성들 중 출혈증상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DDAVP(desmopressin)이 꽤 성공적임이 밝혀졌다. 이 비혈액제품을 사용하면 8인자의 레벨을 높일 수 있다. 그 증

가는 출혈을 막는데 충분하다.

먹는 피임약의 형태로 estrogen과 progesterone 같은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출혈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호르몬은 생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응고인자 레벨을 높인다.

여하튼 혈우 보인 여성들은 증상을 갖든 갖지 않든,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한다. 당신이 어떤 수술을 받기 전에 혈우센터의 스태프들과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

게다가, 8인자가 낮은 여성은 몸을 부대끼는 운동을 피하고 응고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아스피린 같은 약을 먹지말라.

의료계는 출혈에 문제를 갖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으로, 새로이 개발된 치료법이 나올 것이다.

### 혈우병인 여성

혈우 A혹은 혈우B를 가진 여성은 드물다. 이런 경우는 그녀의 아버지가 혈우병이고 어머니는 혈우보인자인 경우에 생기거나, 혹은 임신중일 때 돌연변이로 두 개의 X염색체에 변이가 생길 경우이다. 혈우병을 가진 남자들과 같은 증세를 가진다는 것 외에, 이러한 병을 가진 여성이 매우 드물다라는 고립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우병인 여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혈우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모든 것과 싸웠어요. 난 완전히 남성위주로 제작된 정보책자같은 것을 참고 봐야 했어요. 전 제 고유의 것을 원해요.”

### 결론

혈우 보인자인 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한 부분이 당신 인생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혈우사회나 유전상담같은 관련된 분야에선 최근에 개발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혈우센터 호주혈우연맹, 그리고 당신의 지역혈우연맹 같은 곳에서 당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여름! 그 찬란했던 한



교향  
소:충남 당진군 청소년 수련마을 추최:한국교



① 캠프화이어 장면 ② "환상의 난지도" 레크레이션 시간 ③ 디스코 타임의 열정적인 무대

④ '너 노래 못하면 내가 잡아간다' ⑤ 미스 코렘 참가자들과 인터뷰광경

⑥ 수염난 산타클로스(풍선껌 빨리풀기 게임중)

⑦ 밴드를 이용한 근육강화운동

⑧ 의학세미나 광경 (진지하게 경청하는 코렘회원들)

⑨ '난 심청이가 아니야!'

⑩ 해변에서 즐거운 한때

⑪ '공이 너무 높다' (발아구 경기중)

⑫ '너들 여기가 목욕탕인줄 아니?'

⑬ 보물을 찾아라!



## 자운서원을 찾아서

취재 김승택

**아** 직은 더운 여름자락이 한낮에 머물고 있는 초가을에 경기도 파주를 찾았다. 파주시는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하며,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감악산을 비롯하여 산들이 많고 북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어 조선시대에는 도읍지로 거론이 되었을 정도로 명당이라 한다. 매년 10월 울곡 이이 선생을 기리는 울곡 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예전에 임금에게 진상되었을 정도로 품질이 좋다는 쌀과 봄에 임진강에서 잡히는 황복이 유명하다. 이곳 파주는 역사의 고장으로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관문점, 임진강과 더불어 많은 문화제들이 있다. 이번 호에는 자운서원을 중심으로 파주의 유적들과 볼거리들을 아울러 소개해보기로 한다

### 울곡 이이의 생애

울곡 이이선생은 근세조선의 퇴계 이황과 함께 유학의 쌍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철학자, 정치가로 위대한 경륜을 지니고 있었다. 명종 19년(1564) 생원시 식년문과에 장원한 이후 호조, 예조, 이조좌랑, 지평 등을 거쳐 보교리, 청주목사, 직제학, 대사간, 대사헌, 대제학, 형조판서, 병조판서, 우참판,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학자로서는 선유의 경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유학의 독특한 광채를 발현하였다. 특히 학문을 민생문제와 직결시키는 경세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당쟁의 조정, 10만 대군의 양성 및 대동법, 사창 실시에 노력하는 등 크게 활약했다. 또한 선생의 학문은 그 이론이 정연할 뿐만 아니라 선학들의 학문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선학들의 모든 학설을 두루 고찰하고 연구하여 자기의 사색과 체험을 토대로 독창적 경기를 개척하고 있다. 선생은 조선시대의 여류 서화가로서 우리 나라 현모양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임당(1504-1551)의 아들이기도 하다.

### 자운서원

조선중기의 위대한 철학자요 경세가이며 사상가였던 울곡 이

이선생(1536-1584)의 덕망을 추앙하기 위해 광해군 7년에 창건된 자운서원(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은 울곡 이이선생과 모친 신사임당의 묘소가 있고 울곡과 사임당 신씨의 유품이 전시된 울곡 기념관이 있다. 본 서원은 광해군 7년(1615)에 창건되어 효종 원년(1650)에 사액되었다. 하지만 고종5년(186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철폐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70년 복원한 것으로 높은 대지 위에 사당을 앉히고 사괴석 담장을 둘러서 삼문앞에 계단을 이용해 오르도록 설계되었다. 서원 입구 왼쪽으로는 향토유적제6호 이이선생신도비가 자리하고 있다. 선생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 신도비는 선생의 사후 47년이 되는 인조 9년(1631) 4월에 건립된 것으로 대리석 비로 되어 있다. 선생의 묘소는 부인 노씨의 묘소를 시작으로 해서 울곡 이이선생의 묘소와 만형부부의 묘, 그리고 신사임당과 이원수의 묘, 마지막으로 만아들 이경임의 묘와 함께 나란히 정돈되어 있다.

### 울곡 기념관과 사임당의 유품

이곳 울곡 기념관에는 안동 고산석으로 만들어 졌다는 울곡 선생이 쓰던 벼루와 저서들 그리고 사임당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사임당은 일찍 학자의 집안에서 자라나 엄격한 교훈 밑에서 유학의 경전과 명현들의 문집을 탐독하여 시와 문장에 능하였다. 글씨에도 고상한 정신과 기백이 넘쳐흐르며 기품 있는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한 예찬은 많은 사람들의 발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류의 으뜸이다. 또한 시, 서, 화에 걸친 수많은 걸작들을 남기고 있다. 특히 조선조 화단의 대두 안건의 화풍에 영향을 받은 사임당의 초충도는 여성적인 섬세함과 정교함을 발휘하는 그의 화풍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 윤관장군묘와 용미리 석불입상

벽제역에서 광탄쪽으로 6km 떨어진 장지산 기슭에 있는 용암사는 쌍석불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절안에 있는 천연암벽



▲ 용암사 쌍석불 입상.  
토속적인 특징을 얼굴에 나타내고 있다.

에 새긴 2구의 불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마애불상들은 머리 위에 돌갓을 얹어놓은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고려시대 석불입상으로 불성보다는 토속적인 특징을 얼굴에 나타내고 있는 지방화된 불상이다. 불교조각으로는 별로 우수한 편은 아니나, 고려 선종

과 원신궁주의 왕자인 한산후의 탄생과 관련된 설화가 있고, 옆에 명문까지 새겨져 있어 고려시대의 지방화된 불상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광탄면 분수리에는 고려중기의 명장 윤관장군의 묘역이 있다. 윤관장군은 별무반을 창설하였고, 예종2년(1107년)에 정병30만을 거느리고 여진을 정벌하여 9성을 설치하는 등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 철새도래지 임진강

임진강과 한강 하구가 교차되는 삼각주 일원의 광활한 초지와 갈대밭은 재두루미의 도래지이다. 이곳에 재두루미 대집단이 도래한다는 사실은 1961년 11월 약 2,000마리의 재두루미 무리가 이곳에서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1980년 초까지 해마다 10월 하순경부터 이듬해 3월 중순경까지 재두루미 약 1,500~2,000마리가 규칙적으로 도래하며, 일부의 무리는 이곳을 거쳐가거나 이곳에서 월동도 하였다. 그러나 상류와 주변의 개발로 먹이가 점점 없어지자 재두루미는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하지만 큰기러기를 위시한 오리류 등 겨울철새와 도요새, 물새떼 등 봄가을의 나그네새 철새 등이 아직까지 이곳에 적지 않게 모여들고 있어 보호하고 있다.

### 주변불거리와 민속축제

고령산 기슭에 있는 신라 진성여왕8년(894) 창건한 보광사 대웅전, 이밖에 율곡 선생이 국사의 여가와 퇴관후에 들러 작시, 그리고 연구와 묵상을 했다는 화석정, 황희 정승이 퇴관후 여생을 보냈던 반구정, 공릉.순릉.영릉등 왕과 왕비의 무덤들이 있다. 동의보감의 저자이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의 허준(1546-1615) 선생의 묘소도 이곳 파주시 하포리에 있다.민속축제행사로는 파주시의 향토문화축제인 율곡문화제가 매년 10월에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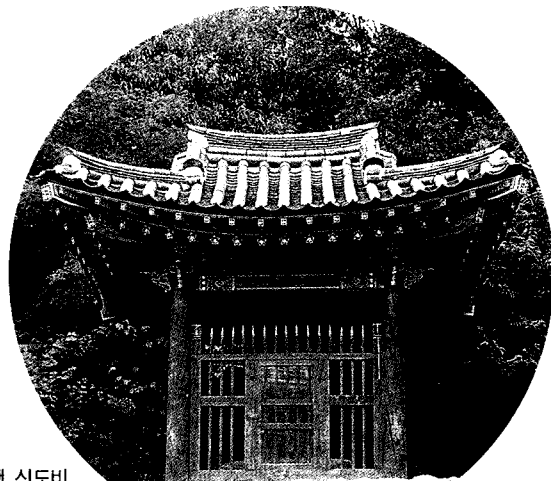
이 행사기간동안에는 율곡선생추향제례를 비롯하여 문화행사, 경축행사, 공연예술행사, 전시행사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진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끝맺는 말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파주는 임진각, 오두산 통일전망대등 안보관광지와 더불어 주변에 다양한 음식점과 호변 산책로가 있는 종합레저 타운으로 조성된 관광지가 많아 가족나들이의 명소이며, 문화유적답사와 안보교육의 장소로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세력을 다투었던 이곳 파주, 지금은 분단역사의 아픔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역사책에 기록된 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름 모를 선조들이 살아간 이 땅 이곳에서 그들이 남기고 간 자취를 찾아가면서 위대했던 20세기의 끝을 마감하는 것도 뜻 깊은 일일 것이다.

### ▷ 가는 길 :

서울 불광동 - 통일로 - 문산사거리(우회전)-37번지방도로(적성방면) - 선유4리 삼거리에서 우측 법원리 방면길 진입 (좌측으로는 적성방면 임진각폭포아장 가는길) - 법원사거리 뚝미처 자운서원 이정표 앞에서 좌회전-자운서원(문산사거리에서 약 10km 임진각에서 약 18km)



▶ 이이선생 신도비 율곡선생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이다.

# 자유를 찾은 자유인

취재 김승택

**일** 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남지우씨(32세), 쉽게 말하면 그림동화나 잡지, 사보, 단행본, 서적 등 출판물들의 컷과 삽화 등을 그리는 화가이다. 서울 도림동에 있는 그의 조그만 작업실 창가의 불빛은 요즘 꽤 늦게까지 골목을 비춘다. 일감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며칠 후면 있을 전시회 준비로 밤을 세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매년 가을 같은 일을 하는 동호인들이 모여 작품을 출품 전시하는데 그에게는 이번 전시회만큼은 의미가 새롭다. 98년 인공관절수술과 재활치료에 정신이 없었던 일이며, 집안의 우환들을 모두 벗어내고 새 의미로 준비하는 전시회이기 때문이다.

반갑게 맞아주는 그를 따라 작업실로 들어갔을 때 먼저 눈에 뜨인 건 한쪽 벽 책장 가득히 꽂혀있는 서적들이었다. “이 책들은 저의 재산목록 제1호입니다. 이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없으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는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관련서적구입에 투자한다고 했다. 최근에 주로 하는 일은 책표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요즘 독자적인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로서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미리 예고해주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본문 내용을 표지그림을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상징적으로 그려야 하는 일이다. 그는 사실 전공은 미술이 아니었다. 집안형편상

가고 싶어하던 미대진학은 못했단다. 그렇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라 대학을 다니면서도 줄곧 아르바이트로 그림 그리는 일을 했다. 그것이 끝내 직업이 되어 출판사 미술부에서 첫 직장생활을 4년쯤 했다. 그러다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또 다른 자기발전을 위해 프리랜서로 독립한지가 8년 전 일이다.

지금까지 회사사보의 그림이나 홍보물 제작, 그리고 케이블방송 유아프로그램 캐릭터와 미술 구성작업을 했으며 현재는 규모가 큰 출판사 여러 곳과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 어릴 적엔 책이며, 노트 할 것 없이 공백만 있으면 그림으로 채워 넣어 부모님에게 혼이 난 기억이 있다고 말하는 그는 그림에 취미를 붙였던 계기를 이렇게 얘기했다. “초등학교 1학년 미술시간에 사실 선생님에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왜냐고요? 그림을 너무 성의 없게 그린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때부터 오기가 붙은 지우씨는 밤낮 없이 그림만 그리게 됐고 서서히 그림에 재미를 알게됐다고 했다. “어릴 적 TV만화 프란다스의게에서 주인공 네로가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루벤스의 그림’을 저도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 후에 사진에서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은 지금도 있지 못해요. 지금껏 미술교과서에 실려 있던 그림들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느꼈지요.”

자기 싫어하는 성격 탓에 중고등학교 때 사생대회에 나가면 항상 1,2등을 놓

치지 않았다는 지우씨, 담담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의 말투 속에서 부드러운만이 아닌 그 어떤 매서움이 느껴졌다.

영화감상이 유일한 취미인 그는 요즘 밀려오는 일감으로 인해 영화관에 가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비디오로 만족하는 실정이다. 아직 미혼인 지우씨, 독신주의는 아니지만 아직 자신의 일정치 않는 생활을 이해 해줄만한 여자를 못 만났다고 겸연쩍게 웃는다.

지금 그에게 조그만 꿈이 있다면 지금보다 좀 큰 작업실을 갖는 것이란다.

‘그림에는 완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남지우씨, 지금의 복잡한 현대문명 속에서 자유를 찾는 시간은 오직 작업에 열중해 있을 때라고 말하는 32살의 예술가 남지우, 열악한 환경과 지병을 극복하고 끊임 없이 매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마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근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유를 찾는 그의 열정 속에서 형편상 가지 못했던 미대진학이나 지병으로 인하여 포기해야했던 유학의 꿈들은 비로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다.

‘자신이 짊어진 병으로 인해 그 자리에 적당히 안주해 버리려는 코험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병보다 그로 인해 미리 포기해 버리는 행동과 안일한 생각이 어찌면 더 큰 병일수도 있다’ 라는 그의 말이 헤어지면서 돌아오는 필자의 귀에 계속 맴돌았다.

# 향기의 종착역

대구 김승근

가냘픈 향기에 추억을 담고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의 행복을 찾아  
 예전의 기억일는지, 전생의 기억일는지  
 다만 그 향기의 인도로 발걸음을 맡기네

두베산골 회연 연기를 따라  
 향기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생전 알지 못한 곳  
 그러나 살내음 풀내음이 기억속에 잔재하네  
 다만 그 향기에 인도로 발걸음을 맡기네

아. 이제 막 저 멀리 보였던 수평선을 넘었네  
 두려움, 그것은 완전한 독립에 따른 감초(甘草)  
 향기에 이끌리어 찾아온 이곳이여  
 다만 행복한 잔여삶의 마감을 기대하네

광명(光明)이며, 향기의 추억이 생명의 빛이네  
 화려함, 내 삶속의 동경(憧憬)을 이제서야 형언(形言)하네  
 향기는 독립이며, 독립은 동경을 향해 치닫는 여명  
 종착역에 발기하여 다만 그 향기에 감사하네.



## 광 주 소 식

광주. 전남 지회에서는 99년 코헬 하계 캠프에 회원 11명과, 봉사요원 2명, 총 13명이 참석하여 3박 4일간(8월11일부터 14일까지) 충남 당진군 청소년 수련원에 다녀왔습니다. 회원들간의 친목과 재활 운동요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혈우병에 대한 원장님의 강의도 들었습

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우리 회원들에게는 유익한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13일밤 전국 코헬 노래자랑과 미스코헬선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대 구 소 식

이번 99하계코헬캠프에서 대구, 경북지회에서는 30명의 회원과 어머니 봉사자께서 참가하였습니다. 당진군 난지도에서 개최된 이번 캠프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보람차고 재미있는 일정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추억이 남는

캠프였습니다. 한편 본 지회는 경북대병원의 협조로 8월말 이틀에 걸쳐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 전 주 소 식

전주예수병원 소아과장에 김완섭 선생님 후임으로 박세명 선생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또한 담당 간호사로 수고하시던 김현미 간호사께서 신생아실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최은경 간호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주. 전북지역 환우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편 새로 부임

하신 박세명 선생님과 청심회 임원들과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지회의 활성화 방향과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의 유기적 협조 문제, 그리고 회원들의 정기적 검진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부 산 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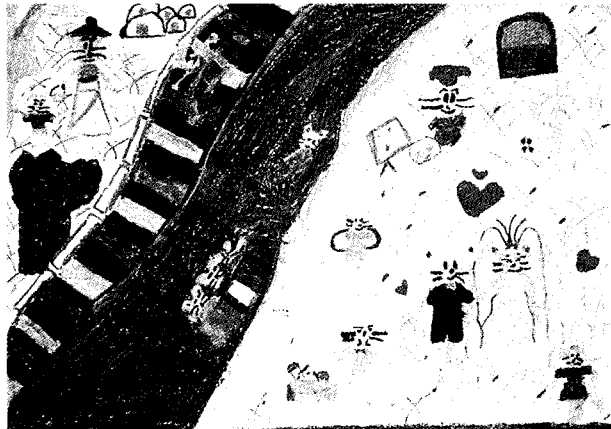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충남 당진 대난지도에서 개최된 99코헬하계캠프에 부산,경남지회에서는 회원과 어머니봉사자를 포함하여 1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었으나 각 지역에서 온 환우들과 친교를 나누었습

니다. 특히 의학강좌시간에는 의학상식과 더불어 질의문답 시간을 통해 많은 궁금점을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재 단 동 정



그 동안 재단을 위해 애써주시던 안규태 사무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새 식구로 김익환 차장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떠나시는 분의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재단의 새 식구가 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재단 발전에 힘써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표 지 설 명

이번호 표지는 99년 어린이 날 행사 그림부문에서 우수상으로 당선된 조현태(전북, 11세)군의 작품으로 쥐의 나라를 상상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징그러울 것 같은 쥐지만 그 세계에서도 결혼도 하고 소풍도 가고 물놀이도 즐기며 그림도 그리는 쥐들의 생활을 상상해보면서 비록 작은 미물일지라도 인간과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 메 세 지

이별이 찾아오면...

나뭇잎이 한잎 두잎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거리에 쌓여가는 낙옆이 마냥 서글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봄에 피어날 새순을 기약하는 약속된 이별인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려고 한다면 준비된 이별처럼 순순히 보낼 것입니다. 다음 번 나와 인연으로 이어질 미지에 그를 기다리며...

이제는 의연해 지고 싶습니다.

혈우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전국의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한국혈우재단보가 제간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자연은 풍성한 곡식을 우리에게 안겨다줍니다. 코렘회원들 또한 자연을 닮아 기쁨과 희망으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제 33호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저희 편집부의 작은 정성이 코렘가족 여러분에게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에 "코렘"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코렘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내 용 : 시, 수필, 투병수기, 체험담, 콩트 등의 문예물과 기타 알릴만한 내용과 혈우병치료에 관한 궁금한 사항
2. 모집기간 : 별도의 모집기간없이 수시모집
3. 보내실곳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4-1 포은빌딩 3층 한국혈우재단
4. 상 품 : 참가자와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소수만을 위하여

적(少)은 것은 아름답다.

목소리가 낮아 듣는 사람 없어도, 발길에 채이고 흙탕물에 몸이 젖어도

적은 것엔 소리가 있다.

빈 수레의 요란한 소리, 지어 멀리 새벽을 뚫고 달리는 기차의 화통소리.

듣는 사람이 적(少)으면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小), 아무리 낮아도 귀얼린

사람들에겐 전장의 북소리처럼 울리고,

듣는 사람이 많으면(多) 소리가 아무리 커도(大) 아무리 높아도 귀달린 사람들에겐

한낱 낙엽 떨어지는 소리처럼 가라앉는다.

적은 만남이 큰 행복으로 이어지면 그 행복의 치수가 클 것이요,

큰 만남이 큰 행복으로 이어지면 그 행복의 치수는 작을 것이다.

적은 것은 귀한 것, 소중한 것, 축복 받는 것.

가뭄의 작은 비는 갈증을 해결하는 단비요,

홍수의 큰비는 재앙마저 부르는 비라.

소수는 순결한 것, 깨끗한 것, 사랑스러운 것.

끝까지 갈망하는 작은 희망에 큰 축복이 내려지며

끝까지 울부짖는 작은 외침이 큰 성과를 부르는 것.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네

소수만을 사랑한다네.